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the Lord That Makes Heaven)를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⁴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⁵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15:4-5)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밝히 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도록 우리 영육(靈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7번 글부터입니다. 메인 텍스트는 볼드체로, 주석 및 설명은 따로 ‘※’ 표시로 구분했습니다.

제가 작년 1월 시술받은 우안(右眼)이 19개월 만에 다시 흐려져 부득이 주일 설교를 기존 주제 설교에서 주석 설교식으로 당분간 바꾸게 되었습니다. 즉 기존 어떤 글을 주 텍스트로 하되 간간히 주석을 달아 설명하는 형태로 당분간은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스페텐보리의 ‘천국과 지옥’(Heaven and Its Wonders and Hell) 2장, ‘주의 신성이 천국을 이룬다’(It Is the Divine of

7 천사들이 이만큼 모여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천국을 구성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러니저러니 천국을 이루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나와서 천사들 안으로 흘러 들어가 그들에게 수용(受容)되는 주님의 신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신성은 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선과 진리를 받는 정도만큼만 천사요, 천국입니다.

요15:4-5, HH.7-12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 천사라는 별도의 피조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사람이시며,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고, 천국도 사람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 아닌 무슨 별도의 피조물을 따로 창조하신 적이 없으신데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말씀을 겉뜻으로만 읽어서이며, 서신서들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천사는 사람이 나중에 천사가 되는 것이며, 악령(惡靈) 역시 사람이 나중에 악령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사후(死後),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은 천사,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악령이 되는 것입니다.

※ ‘사랑의 선’(the good of love)이라는 표현이 언뜻 와닿지 않으시면 ‘사랑에 속한 선’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선은 선인데 사랑에 속한 선 말입니다. 여기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선이라 말은 하면서도, 또 선인 줄 아는 것들 가운데서도 정작 사랑에 속한 선이 아닌 그런 선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령, 겉모양은 분명 선인데 속셈은 따로 있는 그런 건데요, 주님도 지적하셨던, 소위 ‘외식(外飾)하는 자들의 선’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이지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6:16)

선거철이 되면, 갑자기 불우이웃돕기나 양로원 같은 텔 찾아다니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로이겠습니다.

‘신앙의 진리’(the truth of faith)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진리인데 신앙에 속한 진리를 말하며, ‘신앙’이란 주님께 대한 태도임을 생각할 때, ‘신앙의 진리’란 주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를 알려주는 잘 정돈된 교리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선’과 ‘신앙의 진리’가 곧 주님께에서 나오는 신성이라고 오늘 주님은 스베덴보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 ‘...이 선과 진리를 받는 정도만큼만 천사요...’라는 표현으로 짐작할 수 있듯 천사라고 다 같은 천사가 아닌 것이 마치 지상 어느 누구도 소위 ‘똑같은’(클론, clone)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쌍둥이라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할지라도 그 지문(指紋)과 성문(聲紋), 성정(性情)과 캐릭터가 다 다르듯 말입니다. 모든 천사는 그 선과 진리, 곧 주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다 다른데, 단 한 명의 천사도 ‘똑같은’ 신성을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천국은 ‘똑같다’는 개념, 복제, 클론의 개념이 없는 나라입니다.

8 천국의 모든 구성원이 알고 믿으며, 심지어 지각(知覺, *perceive*)까지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의도하고 행하는 어떤 선도 자기한테서 나온 게 아니요, 또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어떤 진리도 자기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대신 오직 신성, 곧 주님한테서 나온 것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은 선은 선이 아니요, 자기로 말미암은 진리 역시 진리가 아닌 것이, 그것들에는 신성에서 오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가장 내적 천국 천사들은 이 인플럭스(*influx*, 入流)를 확실히 지각하고 느끼는데요, 천사들은 주님한테서 나오는 이 인플럭스라는 입류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과 신앙, 지성과 지혜의 빛 가운데 있고, 그

결과 천국의 기쁨 가운데 있음을 지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신성으로부터 나오며, 이 안에서 천사들은 자기들의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천국을 이루는 것은 천사들 자신의 본성(*own*)에서 나오는 적당한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의 신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천국을 가리켜 ‘주의 처소’, ‘주의 보좌’라 하며, 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주 안에 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성이 어떤 식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천국을 가득 채우는지는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국에 가득한 이 지각을 퍼셉션(*perception*)이라 하는데, 인류 첫 교회인 태고교회(아담교회)때까지만 해도 이 퍼셉션을 누렸지만, 점점 상실,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퍼셉션의 빈자리를 주님은 ‘양심’이라는 것으로 대신하셨습니다. 태고교회의 종말인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존재 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퍼셉션이란 특별히 배우지 않고도

요15:4-5, HH.7-12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과 진리를 본능적으로 아는 영적 통찰력입니다. 이 능력은 천국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전체가 주님의 신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 천사들도 우리처럼 ‘본성’(本性, *own*)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하호호만 하고 있을 수 없듯이 천사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엔 천국 천사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늘 하하호호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사들 말이, 우선은 그런 건 단조로워서 금방 지루해진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상태변화가 있어 아침, 낮, 오후, 저녁, 새벽 등의 사이클을 탄다고 합니다. 천국엔 밤 상태는 없습니다. 천사들의 이런 상태변화로 인해 더욱더 천국의 모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 천국은 두 나라, ‘천적 나라’, ‘영적 나라’로 나뉘는데 ‘주의 처소’는 전자, ‘주의 보좌’는 후자를 가리킵니다. 천적(天的, *celestial*)이다, 영적(靈的, *spiritual*)이다 하는 것은 천사들이 주님의 신성을 어떻게 받아들일느냐에 의한 것입니다. 곧 주님의 신성인 선과 진리 중 선에 더 끌리는 천사들을 천적 천사, 진리에

더 끌리는 천사들을 영적 천사라 하며, 저들로 구성된 천국을 각각 천적 천국, 영적 천국 또는 나라라 부르는 것입니다.

9 천사들은 그들의 지혜로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선하고 참된 모든 것뿐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확증합니다. 곧, 어떤 것도 스스로가 아닌, 대신 그보다 먼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만물은 그 처음 존재로 말미암아 샘처럼 시작하는데요, 그들은 그 처음 존재를 모든 생명의 궁극적 존재, 에세(*esse*)라고 합니다. 같은 식으로, 만물은 계속해서 존재하는데요,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곧 존속하는 것은 끊임없는 생겨남이며, 무엇이든지 중간에 있는 것들로 인해 계속해서 그 맨 처음 것하고 끊임없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즉시 흩어지며, 완전히 소멸됩니다. 천사들은 덧붙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이며, 사람의 생명은 거기서 나오는 물줄기라고 말이지요. 만일 그 원천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으면 즉시 말라버리고 마는 그런 물줄기 말입니다.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2] 다시 천사들은 말합니다. 이 생명의 유일 원천, 바로 주님이시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직 신적 선과 신적 진리밖에 없으며,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즉 선과 진리를 신앙과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천국이 되지만, 반대로 거절하거나 질식시키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변하여 지옥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선을 악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변질시켜 생명을 죽음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천사들은 생명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우주 만물은 선과 진리에 연관되는데, 이때 선은 사람의 의지(*will*, 자유 의지, *volition*), 곧 사랑의 생명에, 진리는 사람의 이해(*understanding*, 인식, 인지, *cognition*), 곧 신앙의 생명에 각각 연관됩니다. 선하고 참된 모든 것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명의 모든 것 또한 반드시 위에서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3] 이런 것이 천사들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선행에 대한 모든 감사를 거절하며, 만일

누가 자기들한테 그 선에 대한 공로를 돌리기라도 하면 화를 내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의 지혜가 자신한테서, 자기의 선행도 자신한테서 나온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선 그 자체를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 천사들은 이것을 신성에서 나오는 선이라고 합니다. 천사들은 말하기를, 이 선이야말로 천국을 이루는 선인데, 그 이유는, 이 선이 곧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우리도 이래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천사들처럼 우리의 모든 선행과 지혜에 대한 칭찬과 공치사를 모두 주님께, 철저히 주님께 온전히 돌려야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스멀스멀 피어오른다면 순간 눈을 번쩍 뜨고 속으로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고는 천사들처럼 얼른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곧 주님의 향기가 나를 감싸지만, 반대로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관심과 환호에 취해 그걸 즐기고 앉아있으면 곧 내 주위에

요15:4-5, HH.7-12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말할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귀한 영적 지식들과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천사들처럼 일체 자기를 부인하며, 모든 칭찬과 공을 온전히 주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꼭 그런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10 세상 살 동안 자기들이 행하는 선과 믿는 진리가 모두 자기들한테서 나오는 것이거나 자기들이 본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온 그런 영들은 (선행을 자기 공로로 여기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인데요) 천국 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을 피합니다. 그들은 저들을 어리석다 하며, 도둑들이라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언제나 자기 자신일 뿐 주님의 신성이 아니기 때문이며, 도둑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것을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천사들 안에 있는 주님의 신성이 천국을 이룬다는 천국의 신념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 전에 말씀드렸듯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천사들, 악령들이 와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선한 기억과 생각 속으로, 악령들은 우리의 악한 기억과 생각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기억이 원래부터 자기들 것인 줄 알고 소중히 다룹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천국, 즉 주님께로 인도하지만, 악령들은 지옥으로 끌어당깁니다. 천사들의 목적은 곧 주님의 목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행복입니다만 악령들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든 선한 생각들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반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온갖 종류의 악한 생각들은 전적으로 우리 안의 악령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악령이 하는 거야!’ 라며, 얼른 그 생각에서 뒤로 한발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직접 상대할 수 없습니다. 악을 직접 상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곧 악을 피하는 것,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악에서 물러나는 것,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 천사 들, 악령 들이 와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의지(will)와 이해(understanding)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에 상응하는 천국과 지옥에서 하나씩, 이해에 상응하는 천국과 지옥에서 또 하나씩, 해서 둘씩, 둘씩 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주님께 대한 ‘상태’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일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내 ‘상태’가 천국이면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지옥이면 나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 꼭 죽어서 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는 육을 옷처럼 입고 있는 상태냐 벗은 상태냐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1 주님은 가르치시길, 천국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도 그들 안에 계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15:4-5)

※ ‘천국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천국을 비롯, 사실 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

12 이 모든 사실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천국 천사들에게 있는 주님의 것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과, 그래서 주님은 천국 전체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이 천사들 안에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며, 무엇이든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곧 주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천사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은 그들 자신한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을 신적 진리(Divine truth)라고

요15:4-5, HH.7-12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of the Lord*)’

합니다. 신적 진리는 주님의 신적 사랑(*Divine love*)으로부터 나와서 천국으로 흘러듭니다. 신적 사랑과 거기서 나오는 신적 진리는 이 세상 해의 불과 거기서 나오는 빛과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사랑은 해의 불과 같고, 진리는 해의 빛과 같습니다. 신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신적 진리에 결합된 신적 선입니다. 이 결합으로 천국 안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것이 마치 해의 열이 그 빛에 융합되어 지상 만물을 열매 맺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충만한 생명이 주님의 신적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지금부터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모든 것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지표면이 따뜻한 태양열을 받아 생명 활동을 하려면 해를 향해야 하듯 우리도 삶의 모든 상황, 상황 주님의 생명의 보살피심을 누리려면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은 해처럼 모든 것을 이미 영원히 허락하셨으므로 우리만 주님을 향하면, 곧 우리만 주님의 것을 담기 위해 심령의 창문만 열면,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선과 진리, 사랑과 신앙, 지혜와 지성, 총명, 지식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 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요셉도, 다니엘과 솔로몬도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주님을 사랑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단단히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 늘 주위를 밝고 환하게, 따뜻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천사들도 그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악령들이 가까이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요만큼의 악하고 어두운 기운과 생각들은 철저히 털어버리며, 거절하고 외면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마치 똥냄새를 맡고 똥파리들이 꼬이듯 악령들이 꼬여 별의별 골치 아픈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부디 주님을 사랑하여 신성 가득 천사들을 통해 늘 보살피심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2-08-14(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